김병현 "WBC 향해 뛴다"

MLB 무소속 설움 딛고

국내서 몸 만들기 한창

코치 "전천후 보직 적합"

'한국형 핵잠수함' 김병현(29·전 피츠버그)이 오랜 방황을 끝내고 내년 3월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참가에 적극적인 뜻을 밝혔다.

양상문 WBC 대표팀 투수코치는 "지난주 김병현과 통화에서 WBC 참가 의사를 확인했고 앞으로 훈련 상황을 계속 체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병현은 현재 서울 모처에서 훈련 중이다. 양 코치는 또 "김병현이 WBC에 참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년을 쉬었지만 아예 공을 놓았던 게 아니기에 조금만 더 훈련하면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김병현을 잘 아는 또 다른 인사도 "김병현이 보통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2주 전부터 피치를 올려 왔다. 내년 3월 예정된 WBC에 참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WBC 참가에 대해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선발자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던 김병현은 지난 3월 소속팀인 피츠버그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뒤 새 둥지를 찾지 못해 올 시즌 그라운드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상황 탓에 지난 1일 김인식 WBC 대표팀 감독이 1차 후보 45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김병현을 엔트리에 포함한 것을 두고 "1년간 쉰 선수를 무엇을 믿고 발탁하려느냐"는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었다.

김병현이 WBC 참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긴 했지만 최종 명단 포함 여부는 불투명하다.

양 코치는 "김병현의 구위를 직접 보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지만 내가 2~3일 지켜본다고 정확하게 김병현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병현이 최종 명단에 포함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에 조심스럽게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병현이 뛰겠다는 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다. WBC는 투구수에 제한을 둬 연투 능력이 있는 전천후 투수가 필요하다. (외국타자들에게 잘 통하는) '옆구리 투수'는 임창용(야쿠르트 스왈로스), 정대현(SK), 김병현 뿐 아닌가"라며 김병현의 가치를 높게 인정했다.

고심끝에 미국프로야구 잔류를 선언한 김병현도 새 둥지를 찾으려면 WBC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게 급선무다. 경제 한파로 메이저리그 FA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김병현을 원하는 팀이 아직 없는 형편이다.

빅리그 타자들을 상대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병현이 남은 기간 구위를 회복해 WBC 대표팀 마운드에 가세할 지를 놓고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3인 블로킹을 뚫고

9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 프로배구 V-리그 흥국생명과 현대건설의 경기에서 현대건설 아우리(뒤)가 흥국생명 카리나, 김혜진, 황연주 3인 블로킹을 앞에 두고 스파이크를 날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3-1로 이겨 정규리그에서 흥국생명을 상대로 35개월만에 승리의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한국 탁구 자존심을 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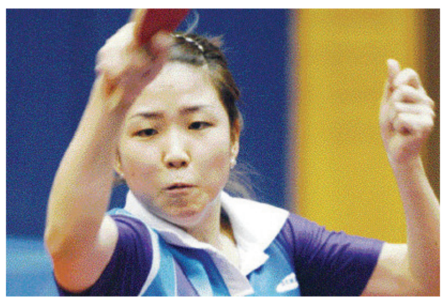
유승민·박미영 등 5명

그랜드파이널스 출전

내일부터 4일간 마카오서

유 승 민

주 세 혁



박 미 영

남녀 탁구 '간판' 유승민(삼성생명)과 김경아(대한항공) 등이 2008년 국제탁구연맹(ITTF) 프로투어 대회를 총결산하는 그랜드파이널스에 출전한다.

유승민, '수비 달인' 주세혁(삼성생명), 윤재영(상무)과 여자 에이스 김경아, 박미영(삼성생명) 등 5명은 11일부터 14일까지 마카오에서 열리는 그랜드파이널스 참가를 위해 10일 출국한다.

이번 대회에는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단식 금메달리스트 마린과 세계랭킹 1위 왕하오, 여자부 세계 2위 리샤오샤, 3위 궈웨 (이상 중국) 등 정상급 남녀 선수 각 16명이 참가해 최강자 자리를 다툰다.

세계 8위 유승민은 베이징올림픽 때 단식 32강에서 탈락하는 부진을 겪어 단체전 동메달을 딴 것에 위안을 삼아야 했다.

유승민은 이번 대회가 재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천적' 마린, 왕하오 외에 유럽의 강호 블라디미르 삼소노프(벨로루시·6위), 중국의 차세대 에이스 마룽(3위),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 왕리친(5위) 등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모두 참가한다.

유승민은 지난해 그랜드파이널스 단식 16강에서 왕하오에게 1-4로 덜미를 잡혔고 복식에서도 왕하오-마린 조에 3-4로 역전패하는 '왕하오 징크스'에 시달렸다.

유승민으로서는 상대전적 2승17패의 절대적 우위인 왕하오를 상대로 설욕할 기회다.

주세혁(세계 10위)은 지난달 끝난 세미프로대회인 슈퍼리그(단체전)에서 국내 실업랭킹 1위 오상은(KT&G)을 두 차례 모두 꺾는 등 단식 12경기 전승의 상승세를 밑천 삼아 첫 우승에 도전한다.

또 '탁구 여왕' 장이닝(중국)이 불참한 여자부에서는 김경아(세계 11위)가 단식은 물론 '수비 콤비' 박미영(세계 24위)과 호흡을 맞춘 복식에서도 상위권 성적을 올리겠다는 목표다. /연합뉴스

일본야구 내년부터 스트라이크 존 넓힌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산케이스포츠는 9일 일본프로야구 퍼시픽리그 이사회가 '애매하면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엄격해지는 한국의 스트라이크 존에 비해 일본의 스트라이크 존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이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려는 것은 볼 판정이 늘어나면 경기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스트라이크 판정을 늘려 경기시간을 단축해보자는 의미다. 지난달 센트럴리그도 이사회에서 "가능한 스트라이크 판정을 늘리자"는 방침을 정한만큼 내년부터 일본의 스트라이크존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라이크존 확대에 대해 일본 열도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은 상반된 입장이다. 타자인 이승엽과 이병규에게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지만 야쿠르트에서 한 솥밥을 먹게 된 임창용과 이혜천에게는 새로 적용될 스트라이크 존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스트라이크존이 인색해지고 있는 추세다. '투고타저' 완화를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부터 좌우폭을 줄이고 상하폭을 늘린 스트라이크존을 도입했다. 하지만 좌우가 좁아지면서 낮은 코스 좌우 공략이 어려워져 현장에서 느끼는 '인색함'은 더한다.

깔끔한 제구로 올 시즌 '방어율왕'에 등극한 KIA 윤석민은 "일본 야구중계도 즐겨보는 데 우리나라 스트라이크 존은 높낮이에 대한 적용이 애매하고 전반적으로 좁은 편이다"며 "지금보다 스트라이크 존이 더 좁아진다면 투구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투수들의 제구력 향상을 통한 야구 발전'과 '경기 시간 단축' 이라는 상반된 효과를 놓고 한국과 일본의 고민이 엇갈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중국과 정상 다툼

주니어탁구선수권 결승 진출

18세 이하 남녀탁구 유망주들이 제6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결승 길목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은 9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부천중원고 트리오'인 이상수와 서현덕, 정영식을 앞세워 영국에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한국은 일본을 접전 끝에 3-2로 물리친 중국과 우승을 다툰다.

하지만 한국 여자는 만리장성에 막혀 준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게임스코어 2-2로 맞선 최종 5단식에 나선 이현은 천멍에게 두 차례 듀스 대결을 모두 패하며 0-3으로 무릎을 꿇었고 한국은 결국 중국에 2-3으로 져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10일(수)

▲NH농협 08/09 V리그〈KT&G : GS칼텍스〉(16 : 40·KBS n sports) 〈삼성화재 : 대한항공〉(18 : 40·KBS n sports)

▲08/09 프로농구〈KCC : 동부〉(18 : 45·Xports) 〈SK : 삼성〉(18 : 50·SBS 스포츠·MBC ESPN)

11일(목)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6차전〈맨체스터 Utd : 올보르〉(04 : 35·MBC ESPN)

한길부동산중개
상무지구518공원앞 062)385-2800, 011-607-1235
쌍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
대240㎡(72.6) 건340㎡(103) 수입통나무 레스토랑
추천업종 : 패밀리레스토랑, 대형치킨호프전문점 최적합
매매가 : 5억7천만원(융2억7천만포함), 현금매수액3억
상무지구 매물구함
건물 • 토지 • 상가 임대 • 점포매매

금당부동산
☎(062)223-7400 핸016-632-5659
(충장로5가 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간)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감정가 70%이하
●공장 담양 월산면 대지 1477건평 863 법상가 6억 7천 경락 3억 6500 매도 3억
●금남로 대지237 건평1462 공시가42억 6천 일부는 공실 전세6억5천 월 2635만원 매도41억
●군산 고속버스터미널 6차선 도로변 대지256 건평 367 작년에 15억에 매입했음 8억8천
●능성동 200평 공시가 9억2천 매도6억4천
●백운동 로터리 모텔과 단란주점 대지91 건평 294 대출1억5천 고시원적합 교환가능 3억
●대인동 광주은행본점 건너 대지 51평 4층 건물 156평 공시지가에 매도 3억3천
●우산동 건물중의 4층 95평 매입 4억7500 은행 2억 의원이나 독서실 적합 매도 3억
●신안동 4차선도로변 상업지 93평 공시가 3억2천 카센터등 적합2억3500만원
●서동 대지 467㎡(141평) 건물 170 법상가 7억 6500 경락 받은지 1년 3억5천
●함평군 해보면 영업용건물 광주에서 20분 대지 233 건평 382 감정 9억5천 매도 5억2천
●광산구 우산동 대지185 건평624 전세6400만원 월940만원 담보 4억3천 매도9억5천
●백운동 외곽도로 대지 162 건평 229 병원 사무등 적합 감정 7억7천선 매도 4억4천
●석정온천땅 1081 건평762 법상가 21억4천 실버타운 요양병원용 10억
감정가이하
●조선대 정문 부근 6차선 도로 6층 건물 대지 237건평 648 매도 18억 5천
●유동 상업지 233평 공시가 4
●치평동 병원 대지 305 건평906 매도41억
●풍암동 대지 154 건평750 전세8억5천 월1400 지하와 5층 일부는 공실 28억
●호남동 대지 84 건평 297 여관이며 고시원이나 원룸적합 방 26개 공시가 4억3천 매도 5억
●학동 대로변 주유소 대지348 건평191 대출5억공시가 11억6천 현금3억 필요하고 교환가능11억
●회정동 지하철역 부근 대지135 주택과 4층 건물 공시가5억5천 매도 6억2천
투 자
●두암동 나대지 83평 공시가에 매도1억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임야2660평 국유지 487평도 사용 절,별장, 전원주택용 3억2천
●지산동 무등산 호텔 가는길 부근 감나무밭 388평 사찰, 복지시설 가든 등 적합 1억9천
●시골주택 화순 능주면 소재지 땅 101평 주택은 수리해야함 매도 1900만원
●신안동 상업지역 180평 감정4억7천 대출은 2억4천선 가능 매도3억
매도·교환
●남평읍 6차선 도로접 355평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건물과 교환 가능 4억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2층 분양 54평 매도 1억 4천 임대는 전세 2천 월 60 가능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가는 길 국도 접 임야 764평 영업시설과 교환 가능 8천만원
●식당운영중인 주택 금남로 5가 대지48 건 72 공시지가 2억 매도 2억4천
●명당 전원주택지 곡성읍 서계리 광주에서20분 대지483평 시내물건과 교환가능 6천만원
●송정리 아파트 상가 3층 50평 학원 태권도장등 적합 분양 1억6400 매도 1억5천
●매월동 공구상가 1층과 2층 25평 분양가 2억3천 대출없음 타 물건과 교환원함
●서구청 부근 큰도로 준주거 150평 5억
원룸·아파트부지·아파트·주택
●임동 123평 공시가 3억2천 매도 2억3500
●서동 143평 공시지가에 매도 1억6500
●아파트 운림동 무등 1차 3층 56평 1억6천
이전해 갈 물건
●충장로 5가 대지 59 건평 228 대출 5억

호남방으로 생각을 이동하라!
호남방
아파트 · 주택 · 전문중개업체
☎062-383-3007
www.honambang.com
(주소창에 호남방)
아파트를 파실 때나 사실 때에는
즉시 전화하세요! 바로계약!
사랑방 · 벼룩시장 무료광고!!
광고비는 호남방이 부담합니다.
호남방공인중개사
(광주본점)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핸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
• 보증금 37억/월세 3,200만원 -매가 85억
• 보증금 20억/월세 4,000만원 -매가 65억
• 보증금 30억/월세 2,000만원 -매가 55억
• 보증금 5억/월세 2,000만원 -매가 34억
▶토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 2,800㎡(850평) 3.3㎡당 1,300만원
• 727㎡(220평) 3.3㎡당1,200만원(유휴지)
• 450㎡(136평) 3.3㎡당 850만원(유휴지)
• 시청역입구 265평 평당 1,500만원
▶기타용도
• (농장) 그린벨트73,000㎡(2만2천평) 평당 9만원(동산동)
• (주유소부지) 신가동 430평 평당 220만원(주유소허가 득)
• (전원주택지) 화순 서성리 전원주택지 분양 평당65만원(18세대 동호인 주택으로 적합)
• (목욕탕부지) 대단위 아파트단지 510평 단독사우나 적합용도로 지하수개발 완료 매매가 45억
• (학원, 장례식장적합) 생산녹지(대지) 대로변 3,000평 평당 250만원
▶기타투자
• 현금45억 투자 호텔 월1억수익
• 현금35억 투자 월 임대수익 6,000만원
★맞춤추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 드리겠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핸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변 코너/융5억6천만/보2억3천 월795만원/매가 12억7천만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변 코너/융6억2천만/매가 13억5천
▶최고급 무인텔(직영)
• 대2,057㎡/건2,248㎡/객실28/융15억/매가 28억원
▶태양광발전소 및 전원주택지
• 임28,200㎡/1,000KW 발전사업허가득/매가 3억5천만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지
• 임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5,239)/현재 감나무 밭/매가 8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전속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